

‘바람 앞의 촛불’ 공기업 수장들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옛날에 술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 정직하고 공손한 데다 좋은 술을 만드는 재주도 있었지만 술이 시어지도록 팔리지 않았다.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 집안에 사나운 개가 있기 때문이었다. ‘사나운 개가 있으면 술이 시어진다’는 구맹주산(狗猛酒酸) 혹은 맹구지환(猛狗之患)의 고사(故事)다.

요즘 날씨 참 덥다. 폭폭 쾨다. 마치 찜통 속에 들어온 듯하다. 대지는 용광로처럼 필필 끓는다. 가마솥이라 해도 이리 뜨거울까. 과장이라고만 느껴졌던 더위에 관한 그 온갖 표현들, 올해는 온몸으로 실감한다.

“날도 더운데 양복저고리는 벗고 편하게 회의를 하시오.” 얼마 전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무더운 날씨를 감안해 기관장들에게 건넨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기관장들은 주저주저했다. 물론 용감하게(?) 옷을 벗은 이도 있었다. 편하게 회의를 하지는 시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더위를 참아 가며 끝내 옷을 벗지 않았다. 왜 이들은 옷을 벗지 못했을까.

우리말 중에 ‘옷을 벗다’라는 표현은 단지 ‘결친 옷을 벗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관직에서 물러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 바뀐 시장이 언제 어떤 신호를 보내올지 모르는 상황이 그럴 만했다.

자리 200개 있어도 모자라

“우리는 ‘옷을 벗는다’는 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한 어느 기관장의 말이, ‘올’일 수박에 없는 그들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듯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뒤 민선 6기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임기 보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지방 공기업 및 산하 기관 등의 대표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임명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매년 교체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면 이들은 늘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되고 만다.

“벗으려면 벗겠어요. 당신이 벗으시면.” 사퇴 압박을 받은 뒤 이렇게 답대하게 나올 기관장은 많지 않다. 지자체장의 교체 의도가 확인되면 대부분은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 버티려 해도 온갖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사다. “감사 들어갑니다.” 이 한마디는 곧 지자체장의 기관장 교체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해 주는 말이다. 감사에도 불구하고 내 몸 깨끗하다면 끝까지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어림없는 말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게 감사 전문가들의 얘기이니까.

광주시 산하 기관으로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24곳이 있다. 이 가운데 도시공사,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그린카진흥원 등 네 곳의 수장이 현재 공석이다.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11월)과 광주영어방송(9월) 등 두 곳은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문제는 행여나 하며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이 무척 많은 점이다. 다 알다시피 지난 선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섭 선거 캠프에 몰렸었다. 이들은 캠프 해단식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겠다’

고 함목소리로 결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속마음도 이와 같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시중에서는 이들 선거를 도운 사람들 일일이 챙기자면 최소 200개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앞서 언급한 기관장 회의로 돌아가 보자. “100m를 10초 이내로 달린다 하더라도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면 잘 달리 못하는 것이다.” 시장은 자신의 철학과 가치가 같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철학과 가치가 다르면 같이 갈 수 없다’는 말.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본 듯하다. 아,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었던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물론 한 나라라면 그럴 수 있겠다.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나와 다른 파와 같이 가는 것은 힘들 테니까.

하지만 광주라는 도시에서 기관장이 누가 되든, 철학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고 가치가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 더군다나 ‘정신적으로는 정의롭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광주’라는 이 시장의 그 멋진 철학에 토를 달 사람이 그 누가 있을까. 결국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그처럼 예뻐서 표현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뭐 짐작하고 말 것도 없었으니, 이 시장은 곧바로 자신의 속내를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된 임명권자는 시민 권익과 광주의 발전에 적합하지 못한 기관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올 하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잔여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다만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경영 성과나 온갖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임기 보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는 일단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제시해 혼선을 줄였다는 평을 받는다.

선거 빛이야 갇지 않아도

그럼에도 노파심에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 성과가 나쁠 경우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몰갈이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들 기관장 중 상당수는 온갖 신상까지 다 털리면서(?) 청문회를 통과한 이들 아닌가. 따라서 기관장의 능력과 성과는 제쳐둔 채 시장의 입맛에 맞도록 무조건 교체하려 드

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임 시장이 임명했다거나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바꾸고, 시장과의 친분이나 선거 기여도 등에 따라 기관장 감투를 마치 선물처럼 주는 것은 또 다른 적폐일 뿐이다.

물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측근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유혹은 시장으로서도 물리치기가 쉽지는 않다. 선거에서 신세 진 이들을 챙겨 주고 싶은 마음 또한 인자상정(人之常情)일 테니까. 그러나 그러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 진 빛은 갇지 않아도 된다. 그 빛 갇으려다 오히려 시정을 망칠 수 있다.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닌 망사(亡事) 되는 걸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 왔다.

측근의 말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대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맹구(猛狗)들이 있기 마련인데 혹시 아닌가. 밟았던 측근이 ‘사나운 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갑자기 완장 차고 설쳐대는 이들이 없는지 늘 살펴보고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민선7기에 서만듬은, 정실·보은·측근·낙산 인사의 오랜 관행(?)을 과감히 깨뜨려 주었으면 하는 것인데, -‘혹시나’가 ‘역시나’되지 않기를.

김경수 일정담당 비서 컴퓨터 압수 주력

‘드루킹’ 접촉 2016년 6월부터의 행적 복원 시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김 지사 소환을 앞두고 막판 증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와 국회 의원회관 등을 대상으로 김 지사와 보좌진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범위는 김 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이 컴퓨터와 연관된 국회 서버, 현재 국회에서 근무 중인 전 보좌진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지사와 보좌진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신제품으로 교체된 탓에 이날 특검은 현재 다른 의원실에서 일하는 당시 일정담당 비서 김모씨의 컴퓨터를 압수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전직 의원이나 보좌관이

사용한 컴퓨터는 포맷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이 일정담당 비서 김씨의 하드디스크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만남이 시작된 2016년 6월부터의 행적을 복원해 드루킹이 주장하는 접촉 정황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사용을 승인하고 이후 대선저 등으로 조작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박상용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김 지사가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 등으로 적시됐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외에 다른 혐의 역시 영장에 적



‘드루킹’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시절 사용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혔으나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김 지사는 킹크랩과 같은 댓글조작 매크로(자동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드루킹 체포 이후 언론을 보고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과 만난 사실 자체는 시인하지만, 그 자리

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의 경남 창원 도시사 집무실과 비서실, 관저, 차량 역시 압수수색했다. 다만 김 지사가 이날 연차를 내고 충주에 머무는 관계로 김 지사의 휴대전화는 현장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위안부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일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내 국제법률국·동북아·기획조정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법관 해외공판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공판 파견을 늘리기 위해 이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살펴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뤘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2년 한 차례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고도, 이듬해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6년 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유사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의 ‘민원’ 내지 ‘요청’이 들어왔다는 언급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인했다.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판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당일 매입가능,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7기)	광주교육대학교(18기)
개강일시	·목요일 오전반 : 2018. 9. 6.(목)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 2018. 9. 8.(토) 09:10 (특급반)	·금요일 오전반 : 2018. 9. 7.(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 2018. 9. 8.(토) 14:10 (중급반)
모집기간	2018. 8. 1(수)~9. 8.(토)	2018. 8. 1(수)~9. 8.(토)
수업기간	2018. 9. 6.(목)~2019.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9. 7.(금)~2019. 2. 8.(금)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620-4243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6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 연연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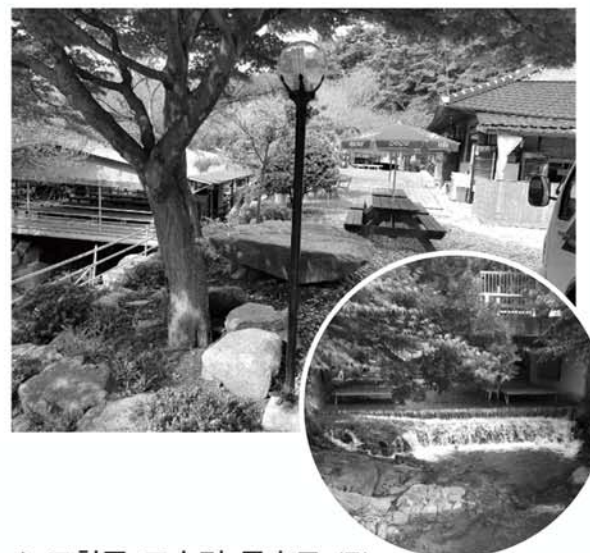
무료 공개 강의 일시

조선대 : 9월 6일 / 주간 3시, 야간 7시

2018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31일
· 교육기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주간 3:00~5:00 · 야간 7:00~9:00
· 수 강 료 : 2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 상담지도교수 : 연락처 010-9416-1200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